

가상공간에서의 정치 활동의 특징과 오프라인 환경과의 연계성에 대한 지리적 고찰: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사례로

박수경*

A Geographical Study on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Activities in Cyberspace and Interrelationship between Online and Offline: A case of South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Sookyung Park*

요약 : 본 연구는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 사이버정당,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 등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사이버정치 활동이 온라인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가상공간 안에서의 정치 활동이 오프라인의 환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이버정치 활동을 했던 32명의 20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일반적인 사이버정치의 형태인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의 경우,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정보의 탐색 및 획득은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열려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며, 정보의 창출과 재구조화는 안정감과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닫혀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이버정당은 가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나, 즉각 형성·소멸되는 즉시적 사회공간을 창출하는 데 부분적으로나마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을 통해 형성된 온라인 관계는 정치적 성향과 관심에 따라 분절되며, 이는 오프라인에서의 네트워크와 주요 활동 장소의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주요어 : 사이버정치,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 사이버정당,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 가상지리학

Abstract : The goal of this investigation is to examine the matter as to how various cyberpolitical activities such as on-line civic participation, cyber parties, development and movement of civil society networks are appeared in cyberspace; and how political activities in cyberspace are associated with offline environment. This research was based on in-depth and open-ended interviews centering around 20s (32 interviewees) and the major results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in terms of on-line civic participation, searching political issues occur in places, where internet users can access information easily relatively, and creating or reconstructing political information is identified in places giving stability or affinity to the public society. Second, even though each party's homepage for the channel of cyber parties has enough capacity as bridgespace, which takes charge of supporting flows of people, goods, capital, and ideas, most of them don't play a role to establish virtual or real networks. Exceptively, cyber parties contribute to make temporalized places, where nobody takes the responsibility, somewhat. Third, the development and movement of civil society networks is divided into several segments according to political interests and tendency in online; furthermore, such a cyberpolitical activity influences human networks and the decision of major places for political activities in offline.

Key Words : cyberpolitics, on-line civic participation, cyber parties, development and movement of civil society networks, virtual geography

본 연구는 2012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 상명대학교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maria1570@smu.ac.kr

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가상공간에서의 다양한 활동 중, 소위 사이버정치(Cyberpolitics)라 불리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토의 방식은 기존 시민사회에 또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은혜정, 2002; Castells, 2001). 예를 들어, 정보 접근의 신속성과 용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비동시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동시적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이용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 신문 및 방송 등의 중간 매체 없이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시대를 열게 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탈시간적, 탈공간적 영역을 구축함으로써 시·공간을 초월한 전지구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했고, 정보의 전달이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적인, 그리고 개인적 수준부터 다자적 수준의 접근까지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켰다(김현성, 20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또한 개인의 취향이나 정보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보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유권자들은 정보의 선별, 습득에 있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게 되었다. 무엇보다 익명성에 기반을 두는, 약한 연대의 정치 참여가 가능한 사이버정치의 특징은 엄격한 규범에 영향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그로 인해 유권자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극했으며, 사회적 위계 질서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백승준, 2011).

이상의 현상처럼 사이버정치는 지리학의 새로운 도전 과제라 불리는 가상공간에서 뚜렷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의 경계 없이 인간 행태에 영향을 미쳐, 결국 누적된 그 힘은 직·간접적으로 현실 세계의 정치 활동과 연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리학 및 이와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 활동의 특성과 이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현실 공간에서 드러나는지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2

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사이버 정치의 특징과 이와 연관된 정치 활동이 어떻게 실제 공간에서 실현되는지 실험적으로 알아보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특히, 2012년 대통령 선거는 그간 정보제공 중심이었던 우리나라의 사이버정치를 실시간 대화 중심의 형태로 변화시킨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이전부터 있었던 인터넷 설전은 한층 발달된 기술과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더욱 가열되었고, 일간 베스트와 같은 특정한 정치색을 띠는 커뮤니티의 등장은 이러한 현상을 부추겼다. 또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시·공간 제약 없는 사이버정치 활동이 가능해졌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SNS)를 통한 빠른 정보 확산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시켰다. 더불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즉각적인 시민사회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며, 집회나 강연 등과 같은 오프라인의 활동을 강화시키는 힘으로 활용됐다. 또한 국정원의 댓글 사건과 특정 정당의 이른바 아르바이트생의 고용 문제는 사이버정치의 중요성과 온라인의 활동이 오프라인의 활동과 강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건이 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2012년 대통령 선거는 기존의 사이버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켰던 것은 물론이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시민사회의 정치적 행태를 재구조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이버정치 현실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사례라 판단,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2. 사이버정치의 정의와 이해

Margolis and Resnick(2000)의 연구에 의하면, 사이버정치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가상공간에서 존재하는 집단 및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트라넷 정치(intranet politics), 둘째, 저작권,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공적 이슈와 관련된 국가나 국제사회가 시행하는 규제 현상(politics

that affects the net), 셋째, 시민 사회, 정치사회, 국가 등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터넷을 정치 과정에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인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political use of the net) 등이다(Margolis and Resnick, 2000; 정기웅, 2005; 김용철, 2009). 하지만 통상적으로 세 번째 영역을 사이버정치라 칭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목표로 하는 정치의 과정 혹은 민주주의의 방식(유석진, 1996; 장정인, 1998; 은혜정, 2002)'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사이버정치는 크게 현실세계에서의 정책 결정 및 이를 위한 상호작용과 이와 관련된 가상공간 안에서의 여러 활동, 예를 들어, 아이디어의 구체화, 정보의 교환 및 탐색, 지식, 증거, 대안에 대한 접근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가상과 현실의 융합적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Choucri, 2000; Choucri, 2012; 정기웅, 200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리학에서 사이버정치에 대한 접근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과 이민 정책의 연관성, 정보통신과 국제정치의 관계, 사이버정치의 실현을 위한 가상공간의 구축 등의 일부 결과만 있을 뿐이다(Staeheli et al., 2002; Choucri, 2000; Hudson-Smith et al., 2005). 더욱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이전에 없던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Castells, 2001).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일정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나타난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술적인 혹은 사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Couclelis, 2009). 이러한 점에서 사이버정치의 가상공간 안에서의 특징 및 실질적 공간과의 연결성에 대한 탐색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이의 응용의 한 사례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전, 가상공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는 누구

나,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개방성에 기초하지만, 그 유대 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김유정, 2007). 다시 말해, 학력과 같은 인터넷 이용에 있어 장애 요인이 없다면, 누구나 가상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시·공간의 구애 없이 활동할 수 있다. 물론, 사용자의 적극성과 관심에 따라 활동 영역과 빈도 등은 달라진다. 흥미로운 사실은 인터넷이 단지 정보교환의 수단으로만 이용된다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는 대부분 범위가 좁고 특정한 관계만을 담을 가능성이 있지만,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물리적·비물리적인 사회적 자원을 제공받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서적 지원, 교제, 정보, 문제 해결 및 소속감의 제공 등이 사이버공간 안에서 자율과 익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사실 오프라인의 그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약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특징이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훨씬 더 적절한 것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동시다발적으로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다수의 사용자들은 얻을 수 있는 지식의 가치가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양질의 것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가상공간으로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게끔 한다(Wellman and Gulia, 1999; 이재현, 2000).

둘째, 사실 도시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면대면 접촉 없이 전화, 전보 등의 매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상호작용이 완전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더욱이 인터넷이 일상화된 오늘날의 사이버공간은 사회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다양한 방식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대중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세계가 명확하게 단절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형성되고, 지속되는 관계가 과연 진정한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의미한 관계로만 전락되는 것도 아니다(Wellman and Gulia, 1999). 사이

버공간은 오히려 현대 공동체가 개인화되는 경향에 대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Wellman and Gulia, 1999), 이렇게 형성된 지속적 관계는 사회를 통합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촉진시킬 수 있다(Wellman and Gulia, 1999).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려는 의도나 주체만 있으면 물리적 공간보다 쉽게, 신속하게, 그리고 광범위-예를 들어, 끈끈한 유대 관계없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모임,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모임 등-하게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 및 유지될 수 있다(김유정, 2007; 이재현, 2000).

마지막으로 가상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탈중심적이며, 평등지향적이고, 위계가 분산되기 때문에, 보통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정형성이라는 것을 탈피할 수 있다(김유정, 2007). 즉, 과거의 수직적인 상호관계는 가상공간 안에서 수평적인 형태로 변형되고, 과업, 권위 등이 중요시되던 분위기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우선시하게 되는 형태로 바뀐다. 그리고 일방향성만을 중요시하던 관계는 다방향성을 띠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며, 수평화된 새롭고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이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보통 일반적인 관계는 가시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가치를 기초로 하는 반면, 가상공간 안에서는 주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선택적인 텍스트를 사용해 감정과 자아를 표현하는 능력은 중요한 요소가 되며, 권위, 연구, 파벌 등으로 얽여져 있는 관계를 벗어난 사회적 연결성이 더 중요시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김유정, 2007; 이재현, 2000).

개방성, 약한 유대 관계의 지속성,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형성, 탈중심성, 평등지향성, 탈위계 등 앞서 언급한 가상공간의 특징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활동과 결합되면서 서서히 오늘날의 사이버정치의 주요한 기틀을 발전시켰다. 그렇지만 사실 사이버정치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부터 인터넷을 통한 검색 및 조회, 블로그 운영, 인터넷 카페 활동 등의 다양한 경로로 표출된 활동들은 사실 직·간접적인 ‘정치화’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단, 오늘날의 사이버정치는 개인부터 집단까지,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 표출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해

졌고, 또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 이전의 그것과 두드러진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대의 사이버정치는 소극적인 정보획득에서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정보 생산 및 권력의 구조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사모, 촛불집회 사건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자극시키는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변모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Castells *et al.*, 2009). 그래서 Clift(2004)가 주장한 것처럼 시민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가상공간 안에서의 정치 활동은 통치의 영역인 정부, 정치가, 정당을 포함해, 심지어 시민사회 스스로의 정치적 이념 및 활동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 안에서의 활동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다양한 활동과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Katz *et al.*(2001), Howard *et al.*(2001), Di Maggio *et al.*(2001) 등의 연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활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실질적인 움직임에 자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이버정치는 학자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 사이버정당, 네트워크 시민사회의 발달과 운동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다(조희정, 2010). 각 형태의 특징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구현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표 1 참조).

우선,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는 대화와 게시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미 경험해봤을 법한 온라인 행태를 정치적 시선에서 바라본 것이다(Hill and Hughes, 1998). 인터넷을 통한 조회와 검색, 정치적 견해에 대한 채팅, 국민신문고 등과 같은 공공성을 지닌 웹사이트에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 UCC를 통한 정보 창출과 공유 등이 이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행태는 가상공간이 생겨남과 동시에 있었던 것이기에 특별히 사이버정치의 구체적인 행태와 경계를 짓기에 애매모호한 것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사이버정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Hill and Hughes, 1998).

예를 들어,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의 핵심인 주요 포털사이트의 신문서비스는 이미 종이 신문을 능가하는 언론 권력으로 변모하였다. 또한 대중은 평등과 익명성을 앞세워 평등한 가상공간에서 그간 다루기 어려웠던 민감한 문제까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같은 의견에 대한 지지를, 반대 의견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없이 하고 있다(김상배, 2008; 김수아, 2011). 이러한 활동은 과거에 수동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기만 했던 개인을 정치적 이슈의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프로슈머: prosumer)로 재탄생시켰고, 더 나아가 중앙집권적인 미디어의 통제와 지배를 해체하고, 정보력 통제의 기능을 개인에게로 이동시켜 똑똑한 정치의 생산·소비자로서의 입지를 보장하고 있다(김상배, 2008; 백승준, 2011). 다양한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는 대중의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하면, 때로는 시민사회의 핵심적인 정보 원천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2012년 대선의 국정원 개입설, 특정 정당의 댓글달기 아르바이트 고용 등과 같은 이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행태는 쉽게 조작이 가능하며, 따라서 떠도는 소문을 양산시키는 평가절하된 실체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은 일차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정치적 관심의 표현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두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사이버정치 행태는 사이버정당과 관련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정치자금 모금과 당비 납부, 온라인 정당 활동, 홈페이지, UCC,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선거 활동,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정치인과의 만남 등이 구체적인 예이다. 정당은 시민사회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에 중개하는 가장 고도화된 정치조직이지만,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결과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따라서 각 정당은 사이버정당의 운영을 통해 시민과의 파트너십 구축, 정당 활동에 대한 이해 확대, 국가와 시민사회의 중개 강화, 시민사회의 동원 등의 기능 회복을 꾀하고 있다(조희정, 2010).

이를 잘 활용한 사례가 2005년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인데, 사이버정당에 관심이 많았던 400만 명은 거대한 정치 자금을 마련하는데 동원되었으며, 오프라인의 후원 행사나 지지 유세 등에 참여하는 힘을 발휘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관심의 양적인 확대라기보다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인에서부터 커뮤니티까지, 그리고 소규모 네트워크부터 대규모 네트워크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한 가상공간 안에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즉,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결집한 집단의 급속한 확대 및 그들의 행동양식 혹은 표출의 실질적인 예이다(조희정, 2010). 그렇지만 사이버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은 개별 정당의 이념 혹은 목표에 근거를 두는 만큼, 정치적 견해가 같은 이들의 이야기만이 통하는 곳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에 대한 과열 양상은 오히려 시민사회와 정당 간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상현실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공공의 정치적 장을 창출하는 행위나, 트위터 혹은 페이스북을 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적 사회운동,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와 같은 온라인 컨퍼런스 등의 직·간접적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이버정치 활동은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욕구가 하나로 모여 발산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NGO를 포함해, 기업, 산업부문, 국제 등 다양한 주체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하나로 움직이게끔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은 기존에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여론을 형성하여 선거유세에서의 동원과 같은 정치적 집단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의 실시간 사회저명인사의 투표 참여 독려는 실질적인 투표율을 좌우한 바 있다(Castells, 1996; 김수아, 2011). 그리고 저항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운동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구세대의 유산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이끌어내어 촛불집회, 노사모의 활

동 등과 같은 개인주도적 집단행동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는 일명 가상공간을 매개로 하여 집단행동의 활성화의 결과로서 사이버 액티비즘(cyber activism)으로 칭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김상배, 2010). 이와 더해, 지협적인 정치적 이슈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환경운동, 여성운동, 각종 인권운동, 종교운동, 문화 프로젝트 등과 연결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정치의 행태는 익명성에 의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집단행동만 자극시킬 수 있는 점에서는 한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이버정치는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며, 반대로 오프라인의 행태가 온라인에 힘을 가할 수 있는, 즉 쌍방향 네트워크가 가능토록 하는 정보화 시대의 집단적인 사회 변화의 주요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 가까이에서 변혁을 꾀하는 매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다양한 의견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경계성이 모호한 전지구적인 전자 집회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Castells, 2001). 그렇지만 앞서

부분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한편에서는 공익성 보장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보격차(Choucri, 2000; 김상배, 2008),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및 정체성의 문제, 정치참여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에 대한 고민, 대표성의 문제와 여론 조작의 가능성의 산재로 인한 인터넷 여론의 함정, 인터넷의 상업주의, 온라인의 규제 등은 아직도 풀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들로 떠오르고 있다(윤종빈, 20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3. 연구대상 및 방법

우선, 우리나라의 사이버정치의 양상과 온·오프라인의 지리적 특성 및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개표 직전까지 결과를 점치기 어려웠고, 선거유세 과정 중에도 변수가 많았던 2012년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본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전의 어떤 선거보다 작년 대선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검색, 온라인상에서의 의견 개진, 그리고 대

표 1. 사이버정치의 유형과 특징 및 한계점

유형	예시	특징	한계점
온라인 국민참여 서비스	- 인터넷에서의 검색 - 채팅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의견 올리기 - UCC 제작 및 공유	- 대중의 즉각적인 반응 확인이 가능 - 정보의 원천	- 조작의 가능성 - 낮은 신뢰 혹은 저평가
사이버 정당	- 정치인에 대한 정보 제공 - 정치 자금 마련 - 온라인 정당 활동 - 온라인 캠페인(예: 홈페이지, UCC, 네트워크 기반 캠페인 등) -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정치인과의 만남	-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의 행동양식 혹은 실질적인 표출로 작용	- 정치적 이념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정보 공유의 장이 될 가능성 - 정치적 과열 양상으로 인해 시민사회 분열 조장
네트워크 시민사회의 발달과 운동	- 온라인 공론장의 형성 -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 - 온라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적 네트워크 - 온라인 컨퍼런스	- 개개인의 욕구를 하나로 모여 발산시킬 수 있음 -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등의 다양한 이슈를 망라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음	-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정치적 집단행동을 자극

주: 조희정(2010)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음.

표 2. 연령대에 따른 매체부문별 영향력 점유율 분포

(단위: %)

주요미디어 \ 연령대	20대 (19살 포함)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신문	11,3	14,9	19,5	22,9	18,8
텔레비전	42,0	42,7	44,7	51,2	66,0
라디오	4,4	7,9	9,6	10,3	10,3
인터넷	42,4	34,5	26,2	15,6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2013.

통령 후보 및 정당에 대한 찬반론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었다. 이에 더해 각종 여론 조작의 흔적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부추겼다. 무엇보다 기술적 측면에서 획기적 진보의 결과인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사이버정치 활동을 가능케 했고, 시민사회의 참여와 실질적인 움직임에 있어 깊은 영향력을 미쳤다. 이러한 점에서 작년 대선은 그간 우리나라의 사이버정치의 일반적인 양상뿐만 아니라, 한층 발전된 형태의 사이버정치를 가늠할 수 있는 사례로 판단, 이를 본 연구의 중심 사례로 선정하였다.

한편, 사이버정치와 젊은 유권자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Hill and Hughes, 1998)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조사한 여론집중도조사보고서(2013)의 내용을 참조하여(표 2 참조), 인터넷정치가 가장 민감하고, 가장 활발히 참여하는 20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인터뷰는 눈골리기표집(Snowballing Sampling)방식으로 진행했다. 작년 12월 대통령 선거는 신-구의 대결(매일경제, 2013)로 언급될 만큼, 세대 간 대통령 후보의 선호도가 극명했을 뿐 아니라, 20대의 정치적 참여가 이전의 어떤 선거에 비해 두드러졌었으며, 여론의 표현에서도 다른 연령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20대는 페이스북을 통한 선거 참여 독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 정당 활동과 선거 유세, 복지 등 민감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인터넷 상에서의 설전,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유권자의 가상공간에서의 만남 등의 활동에 있어 두각을 나타냈었다. 이러한 점들을 미뤄봤을 때, 우리나라의 사이버정치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대상이 20대로 생각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의 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가상공간에서 정치적 성향의 노출 정도와 실질적인 정치 활동 등의 여부를 고려하여 일반인과 활동가로 구분하였다(Hill and Hughes, 1998). 기본적인 온라인 국민 참여서비스만을 하는 경우를 일반인으로 분리, 이미 인터넷을 통한 의사전달(talking)과 의견계재(posting)가 일상이 된 20대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일반인에 대한 심층인터뷰는 2012년 5월 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24개의 결과를 얻었다. 한편, 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선발하였다. 첫째, 작년 대선에서 인터넷을 최우선적인 매체로 정치적 이슈를 얻었던 적이 있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험자임은 물론, 둘째, 인터넷 토론장,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가상 네트워크를 통해 정치적 활동을 한 경험이 있고, 셋째, 정당 활동, 선거유세, 대선 관련 UCC 제작 등의 실질적인 정치 활동에 참여한 바가 있는 경우에 한했다. 그렇지만 사이버정치의 활동가를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어려워, 1) 새누리당, 민주당 등 주요 정당의 청년국 및 대학생위원회, 2) 참여연대, 생활정치연구소 등과 같은 NGO, 3) 정치학도가 있는 서울 시내의 주요 대학의 학생회 등의 도움을 요청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적극적인 정치적 경험이 있는 20대 8명을 소개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활동가에 대한 심층인터뷰도 2012년 5월 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였다.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인은 남자 18명, 여자 6명, 활동가는 남자 6명, 여자 2명의 인터뷰를

표 3.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특성

식별 번호	성별	유형	활동의 정도	인터넷 이용의 주요 장소	인터넷 이용 시간(단위: 일)	주요 활동		
						1	2	3
1	M	1	P	T, U	2~3	○		
2	M	1	P	T, U	2~3	○		
3	M	1	P	T, U	2~3	○		
4	M	1	P	T, U	2~3	○		
5	M	1	P	T, U	2~3	○		
6	M	1	P	T, U	2~3	○		
7	M	1	P	T, U	2~3	○		
8	M	1	P	T, U	2~3	○		
9	M	1	A	T, U	2~3	○		○
10	M	1	P	T, U	2~3	○		
11	M	1	P	T, U	2~3	○		
12	M	1	P	T, U	2~3	○		
13	M	1	A	T, H, U	3~4	○		○
14	M	1	A	T, H, U	3~4	○		○
15	M	1	A	T, H, U	2~3	○		○
16	M	1	P	T, U	2~3	○		
17	M	1	A	T, U, O	3~4	○		○
18	F	1	P	T, U	2~3	○		
19	F	1	P	T, U	2~3	○		
20	F	1	A	T, H, U	3~4	○		○
21	F	1	P	T, U	2~3	○		
22	F	1	P	T, U	2~3	○		
23	F	1	A	T, U	2~3	○		○
24	M	1(→2)	A	T, H, U	5~6	○	○	○
25	M	2	A	T, H, U, P	5~6	○	○	○
26	M	2	A	T, H, U, P	5~6	○	○	○
27	M	2	A	T, H, U, P	7~8	○	○	○
28	M	2	A	T, H, U, P	5~6	○	○	○
29	M	2	A	T, H, U, P	5~6	○	○	○
30	M	2	A	T, H, U, P	5~6	○	○	○
31	F	2	A	T, H, U, P	3~4	○	○	○
32	F	2	A	T, H, U, P	5~6	○	○	○

출처: 연구자 심층인터뷰 결과, 2013.

주: M: 남자, F: 여자, 1: 일반인, 2: 활동가, 활동의 정도 A: 적극적, 활동의 정도 P: 소극적, 인터넷 이용의 주요 장소 T: 교통기관, 인터넷 이용의 주요 장소 H: 집, 인터넷 이용의 주요 장소 U: 학교, 인터넷 이용의 주요 장소 P: 정당 본부, 인터넷 이용의 주요 장소 O: 사무실, 주요 활동 1: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 주요 활동 2: 사이버정당, 주요 활동 3: 네트워크 시민사회의 발달과 운동.

중심으로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오프라인에서의 활동 강도에 따라 일반인과 행동가로 구분하였으나, 예외적으로 2012년 대선 당시에 일반인 중 현재는 행동가의 패턴을 보이는 경우(피실험자 24번)가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따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일반인 사이에서도 활동의 정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 범주화한 사이버정치 주요 활동을 두 개 이상 보이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표시하였고, 하나의 유형만 보이는 피실험자는 소극적 행동양식을 보이는 것으로 기입하였다. 이 외에도 사이버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을 한 주요 장소, 사이버정치 활동 혹은 인터넷 이용 시간 등을 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연구 부분에서 제시한 사이버정치 유형과 내용에 근거해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 사이버정당,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을 기준으로 사이버정치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사이버정치는 물론이거니와 사이버공간에서의 특정 활동 및 온·오프라인의 상호연관성은 Adams (1995), Couclelis(2009) 등의 연구에서 일부 찾아볼 수 있지만, 본 연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깊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이버정치의 온라인상에서의 특징과 가시적인 지리 공간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은 선행연구의 일부 내용에 근거해, 2012년 대선의 주요 이슈를 더한 것에 기초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앞서 언급한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 사이버정당,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을 토대로 하는 사이버공간 안에서의 주요 활동과 특징,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친 요인, 둘째,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 사이버정당,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의 사이버정치 활동이 오프라인에서 구현되는 방식 및 과정,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 셋째, 2012년 대선과 이전의 선거에서 각 사이버정치의 활동의 두드러지는 차별성 등이다.

4. 우리나라 사이버정치의 온라인에서의 특징과 오프라인과의 연결성

1)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를 통한 사이버정치의 특징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를 통한 사이버정치는 크게 정치적 이슈의 탐색 및 조회와 정치적 이슈의 개진 및 재구조화로 나눌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에서 차별적인 형태로 나타난다(표 4 참조). 우선, 인터넷에서의 검색을 토대로 하는 정치적 이슈의 탐색 및 조회를 살펴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심 있는 후보자 및 정당, 그들의 활동과 공약 등에 관한 기사 및 정보의 검색은 일반인이나 활동가에게 있어 자연스럽게, 기초적인 사이버정치 활동이다. 특히, 2012년 대선을 통해 이러한 정보의 탐색과 획득이 심화 혹은 확대된 것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의 주요 이유로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은 공방전이 심했던 2012년 대통령 선거의 분위기를 들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의 등장과 무선인터넷 환경의 조성으로 인해 연구대상자들은 온라인상의 정보에 자주 접속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치적 이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대선에 관한 의식에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인터넷에서의 검색을 토대로 하는 정치적 이슈의 탐색 및 조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덧글 포함), 인터넷 신문, 인터넷 토론장, 개방형 온라인 커뮤니티, 영향력 있는 저명한 인사의 웹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 어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는 등하교 시간이나 여가 시간 등의 잉여 시간에 인터넷 환경이 우수하고, 남는 시간을 활용하기 좋은 공공적 성격의 열려 있는 공간인 교통시설, 학교, 사무실, 카페 등에서 주로 이러한 활동이 확인되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러한 곳에서 얻은 정보는 단지 참고사항으로 이용될 뿐, 특정 후보자를 결정하거나, 특수한 사실에 대해 판단할 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연구대상자들은 언급했다. 또한 정

보의 탐색과 획득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포털 사이트의 대선과 관련된 실시간 검색어 및 정치적 이슈를 포함한 게시물 등이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아 정보의 탐색 및 획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인터넷에서의 검색을 토대로 하는 정치적 이슈의 탐색 및 조회의 특징적인 행동양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당초 정치적 이슈에 관심도가 더 깊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연구대상자일수록 특정 정당이나 후보 혹은 온라인상의 여론을 주도하는 주요 인물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렇지만 오히려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견해를 해석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해줄 수 있는 저명 신문 기자의 블로그, 정치 칼럼니스트 등의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영역에 접속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의 선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인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논리정연하게 설명한 내용을 통해 지지하는 후보의 공약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확인해 보기 위한 행동양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일부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은 포털사이트, 인터넷 신문 등의 댓글, 인터넷 토론장 등의 의견을 통해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의 연설 및 강연회 등의 정보를 얻기도 한다. 물론, 댓글이나 인터넷 토론장 등의 의견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방식으로 얻는 정보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젊은 유권자에게 있어 이러한 온라인의 환경은 여론을 파악하기 유리한 공간이며,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주요한 채널인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적 이슈의 개진 및 재구조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이버정치의 유형에 의하면, 웹사이트에서의 의견 개진, 채팅, UCC 제작 및 공유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채팅, UCC 제작 및 공유를 사이버정치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활동가에서만 나타날 뿐, 일반인의 행동양식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공개에 대한 거부감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간관계 등과 같

은 차후적인 문제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행동가들의 채팅, UCC 제작 및 공유 등의 행동양식도 대선을 준비하면서 청년국 및 대학생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내용 중의 일부로 파악된다. 따라서 정치적 이슈의 개진 및 재구조화는 주로 웹사이트에서의 의견 개진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의 의견 개진을 통한 정치적 이슈의 개진 및 재구조화는 일반인 중에서도 적극적인 경우와 활동가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정보생산자로서의 행동은 예상과 달리 상대적으로 단허있거나, 일종의 관계 맺기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 인증이 필요한 웹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비록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할 수 없는 온라인이지만 자신의 의견이 쉽게 받아주고, 비슷한 생각을 나누는 등의 피드백이 가능한 곳의 선호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설전으로 실질적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은 경험, 공개된 곳에서 자유롭게 글을 게시했다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된 경험 등이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에서도 정치적 이슈의 개진 및 재구조화는 공간의 점유에 있어 차별성을 보인다. 즉, 정보의 창출 및 재구조화는 극히 개인적이고,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되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집과 같은 곳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주요 이유로는 2012년 대통령 선거가 어느 때보다 색깔론이 강했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의 두려움 등이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댓글, 시각 자료를 이용한 게시, 일간베스트와 같은 강력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곳에서의 의견 표출 등의 행동양식을 보인 심층인터뷰 대상자는 이러한 성향이 더욱 짙다. 따라서 다소 정치색을 강하게 띤 행동양식은 인터넷 사용 여부, 지원하는 시설 혹은 환경과 결부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주변에 대한 의식 등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 가끔은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글이 답답하기도 하고, 편파적인 것 같아서 저의 의견을 올리고

싶은 충동도 들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컴퓨터나 제 스마트폰의 내용을 볼까봐 의견 개진하는 것이 꺼려져요. 차라리 집에서 하죠. 친구들과끼리 민감한 정치적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싸우거나, 감정이 상한 경우를 많이 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제 의견을 올리진 않아요...” (16번, 남)

“... 대중적인 곳(온라인)에서 글을 올리거나, 댓

글을 달면, 대부분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 작년 대선이 예민했던 문제였잖아요. 가능하면 제 의견을 이해해주고, 저와 정치적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글을 올렸어요. 주로 집에서 저녁에 작업을 많이 하는데, 가능한 좋은 글을 쓰고픈 마음에 방대한 양의 자료를 찾아보기에도 좋고, 컴퓨터에 창 몇 개씩 띄우고 써도 문제가 안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 마음대로 상상력을 동원해 글을 써도 어느

표 4.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의 온·오프라인의 특징

행동양식	예시	빈도		온라인 선호 공간	오프라인 선호 공간	이용 시간
		일반인	행동가			
정치적 이슈의 탐색 및 조회	인터넷에서의 검색	상	상	- 포털사이트(댓글) - 인터넷 토론장 - 온라인신문 - 개방형 커뮤니티 - 저명인사 웹사이트	- 교통시설 - 학교 - 카페 - 사무실	- 등하교시 - 쉬는 시간
정치적 이슈의 개진 및 재구조화	웹사이트에 의견 개진	중 (단, 일부는 상)	중	- 폐쇄형 커뮤니티 - 개인운영 웹사이트 (인증필요)	- 집	- 저녁 - 휴일
	채팅	하	중	- 유선메신저 - 무선메신저	- 교통시설 - 학교 - 카페 - 사무실	- 등하교시 - 쉬는 시간
	UCC 제작 및 공유	하	중	- 동영상전문사이트 - 정당사이트	- 정당	-

(계속)

행동양식	온라인상에서의 행태적 특징	오프라인과의 연결성	주요 원인	주요 특징
정치적 이슈의 탐색 및 조회	- 일반인, 행동가 모두에게 나타나는 양식 - 인터넷 사용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에서 빈번히 일어남	- 인터넷 사용이 편리(무료서비스)한 공간을 선호 - 잉여 시간에 주로 이용	- 이미 일상화된 행동양식 - 일부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	-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을 선호 - 댓글, 온라인 토론장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집회, 연설 등에 참여
정치적 이슈의 개진 및 재구조화	- 적극적인 일반인, 행동가 중심 - 인증 및 관계 맺기 등으로 접근이 허락되는 곳에서 나타남	- 지극히 개인적이고, 타인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선호	-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 - 주변 시선의 두려움 - 자신의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공간의 선호	- 정치적 이슈의 개인 및 재구조화의 원천을 결국 온라인에서 찾음 -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기 위 소위 그룹 찾기 보임 - 오프라인의 지역 경계가 온라인상에서는 모호

출처: 연구자 심층인터뷰 결과, 2013.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집에서 하는 것이 제일 마음이 편하고 좋죠...” (24번, 남)

정치적 이슈의 개선 및 재구조화의 두드러진 특징도 또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심층인터뷰의 대부분은 정보의 창출 및 재구조화의 주요 원천을 서적, 보고서, 전문자료 등의 외부에서 찾고, 온라인상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포털사이트, 인터넷 신문, 인터넷 토론장, 온라인 커뮤니티, 영향력 있는 저명한 인사의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으며, 여기에서 획득한 정보를 재편집하거나, 재구조화하여, 마지막에 자신의 것으로 해석해 온라인상의 폐쇄적 성격이 강한 곳에 게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어느 정도의 정보의 가공이 있기도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창출 및 재구조화되는 정보는 독창적인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기존 정보의 퍼나르기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 및 인증이 필요한 웹사이트에서 활발히 활동한 일부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온라인상에서만 만났던 사람들과 정치적 목적 하에 오프라인 모임을 갖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모임, 연설, 집회 등의 참석이 그것이다. 이들은 비록 온라인에서 만남 모임이지만, 지속적인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통해 어떤 누구보다 같은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러한 토대는 의심 없이 단합된 오프라인의 모임이 유지될 수 있는 힘이라고 언급했다.

셋째, 그간 우리나라의 대선에서는 지역적 색깔이 뚜렷했고, 이러한 현상이 실질적인 투표에도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번 대선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신·구의 대결, 혹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결 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더 두드러졌다. 이러한 양상은 예외 없이 젊은 유권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상에서도 나타났으며,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영남, 호남, 혹은 어떤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표현보다는 정치

적 신념 및 이념의 표현을 더 빈번하게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역적 경계를 둔 정보에 노출되기 보다는 그렇지 않은 정보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된 현상과 연관지어볼 수 있고, 또한 더 이상 기성세대의 정치적 행동양식이 젊은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인 것을 비취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사이버정당을 통한 사이버정치의 특징

사이버정당을 통한 사이버정치의 특징은 가교공간으로서의 역할 부재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순간적 장소 만들기에서 찾을 수 있다(표 5 참조). 우선, 가교공간으로서의 역할 부재에 대해 알아보기 전, 가교공간에 대한 개념적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온라인상에서 통용되는 가교공간(bridgespace)이란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두 지점, 혹은 다지점(때론 사람 사이의 관계를 포함)을 가상공간 안에서 연결하고, 인적, 물적, 자본적, 아이디어적인 흐름을 지원하는 곳을 의미한다. 다양한 기술, 자원, 이념 등이 하나로 통합된 일종의 미디어적 경관(mediascape)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공간에서의 권력, 인식, 감시 등을 사이버공간에 투영시킨 결과물인 것이다(Adams and Ghose, 2003). 가교공간은 온·오프라인의 특정 지역들을 단순히 이어주고, 연결해 준다는 의미를 넘어 정보에 대한 제공을 돕는 환경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이와 더불어 가교공간은 자연스럽게 발생된 공간이라기보다는 사람에 의해서 창조되고, 만들어진 목적과 이유가 더 가치 있게 평가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자할 때, 미국이나 인도에서 만든 주요 웹사이트를 통해 이민에 대한 정보를 얻고, 당장 가서 머물 집을 알아보거나, 최소한 인도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알아보게 될 때 이 가교공간을 이용하게 된다. 온라인상의 주요 결절이 되는 가교공간은 다른 웹사이트와 달리 특정한 주제에 대해 특수성과 우위성을 가지고 사이버공간을 점하게 되며, 교육, 주거, 직업 등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 웹사이트들과 연결망을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가교공간에

접속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 사이버정당을 통한 사이버정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실상 우리나라 각 정당의 웹사이트 혹은 특정 후보의 홈페이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가 낮고, 오히려 포털사이트, 인터넷 신문, 인터넷 토론장, 온라인 커뮤니티, 영향력 있는 저명한 인사의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참고자료로 전략한 점이 없지 않다. 더 나아가 각 정당 및 특정 후보의 웹사이트를 통해 흩어져있는 사이버정당 활동을 일원화하는 작업은 필수불가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힘은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이미 발전의 발전을 거듭한 사이버환경에서 특별히 각 정당의 웹사이트 혹은 특정 후보의 홈페이지의 매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유권자들이 정보를 얻고, 공유하고, 질의하는 등의 다양한 사이버정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타의 채널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각 정당 및 특정 후보의 웹사이트는 유용한 사이트들을 링크시키고, 효율적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가교공간으로서의 환경을 충분히 조성하였다. 그렇지만 심층인터뷰 응답자 어느 누구에게서도 사이버정치의 가교공간 역할을 하는 정당 및 특정 후보의 웹사이트를 통해 다른 채널을 접속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둘째,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의 가교공간은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을 보여주며, 정당 및 후보의 공약을 공시하는 등의 일방적인 형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정치적 가교공간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www.barakobama.com)의 웹사이트와 비교해 보더라도 유권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정서를 반영하며, 즉각적으로 현실적인 공약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며, 결국 살아있는 공간으로 인식시키지 못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보여주기식의 가교공간의 운영에 대한 대안으로 후보자들이 직접, 혹은 각 정당 선

거캠프에서 여타의 채널을 통해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운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행동양식은 검색을 하면 ‘○○당=www.○○○.kr’으로 떠올릴 수 있는 연관성, ‘www.○○○.kr’에 접속하면 ‘○○당’의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온라인의 정보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미 정당 및 특정 후보의 웹사이트는 구태의연한 정치의 연속으로 인식하는 점을 문제로 들 수 있다. 심층인터뷰의 응답자들은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보다는 자기 당, 자기 후보 감싸기 식의 정보가 넘쳐나는 정치적 웹사이트를 이미 식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연유로 이미 앞서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에서 얻은 결론처럼, 오히려 특정 정당 혹은 후보의 공약, 생각, 의견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설명해줄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현상은 가교공간을 만드는 정보의 제공자 측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각 정당의 대학생 위원회에 소속한 활동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같은 정당 내에서도 신·구 세력의 의견이 많이 달라 젊은 유권자를 포섭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이버정당 활동을 제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각 정당 및 후보의 웹사이트는 가교공간이 아니라 거부감의 공간, 혹은 무관심의 공간으로 전략하게 된 것이다.

“... 이번 선거와는 관련이 없지만, 2002년도에 노사모를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활동이 그야말로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인터넷 환경이 훨씬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각 정당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는 우리 토래의 흥미를 끌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아주 가끔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죠. 오히려 인터넷 신문에서 친절하게 분석해주고, 정치적 견해를 속 시원히 해주는 저명인사의 사이트에 가는 것이 정치적 견해를 확대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9번, 남자)”

표 5. 사이버정당의 온·오프라인의 특징

행동양식	예시	빈도		온라인 선호 공간	오프라인 선호 공간	이용 시간
		일반인	행동가			
가상공간으로서의 역할 부재	온라인 캠페인	-	상 (홍보담당)	- 정당 홈페이지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당사	- 선거유세기간 동안 실시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순간적 장소 만들기		중 (선호가 극과극)	상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무선 메신저 - 댓글	- 모든 장소 망라	- 실시간

(계속)

행동양식	온라인상에서의 행태적 특징	오프라인과의 연결성	주요 원인	주요 특징
가상공간으로서의 역할 부재	- 일반인 중 어느 누구도 각 정당 혹은 특정 후보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지 않음 - 참고자료로 전락	- (하단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순간적 장소 만들기 참조)	-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른 채널이 다양하게 존재 -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 활동이 실질적인 정치에 반영되기는 어려움 - 구태의연한 정치의 연속이라 느끼고 있는 대중의 정서 반영	-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을 선호(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와 연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순간적 장소 만들기	- 특정 정당 혹은 후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그 정당 및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여타의 사이버 공간에 퍼나르기식으로 확산시킴(댓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이 중심)	- 대중집회를 끄는 힘	- 끈끈한 관계보다 느슨한 관계를 선호하는 젊은이들의 성향	- 지속성의 부재 - 그들만의 잔치 - 대중의 호기심 혹은 욕구 분출로 남게 됨

출처: 연구자 심층인터뷰 결과, 2013.

“... 같은 당이지만, 사이버정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집행부를 구성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의 핵심 세력을 20~30대가 아닌, 50~60대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은 하지만, 실질적인 투자나 집중할 수 있는 힘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27번, 남)

따라서 사이버정당의 가상공간으로서의 역할, 즉 정치인에 대한 정보 제공, 정치 자금 마련, 온라인 정당 활동,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정치인과의 만남 등의 행동양식은 일반인에게서나 행동가에게서

모두 찾아보기 힘들었다. 예외적으로,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온라인 캠페인을 담당한 행동가에게서 정당 홈페이지의 게시물 올리기, UCC 제작 등의 콘텐츠 구성과 관련된 행동양식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록 이러한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정당을 통한 사이버정치의 의의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순간적 장소 만들기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상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과 약한 유대관계인데,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 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순간적 장소 만들기의 결과로는 당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일명 광화문 대첩이라고 불리는 대중 집회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시민사회를 근간

으로 하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김상배, 2010).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순간적 장소 만들기는 특정 후보 혹은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그 후보 혹은 정당의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집회, 연설 등의 정보를 퍼 나르기식으로 다른 사이버공간에 확산시키는 행동양식을 따른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댓글, 인터넷 토론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렇게 형성된 사이버정당의 힘은 느슨한 관계를 지향하고, 강한 결속력을 가진 단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성향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미 개인화되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한 지금의 젊은 층의 심리적 상태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몇 가지의 문제점, 예를 들어, 시민사회 힘의 지속력 및 결속력의 문제, 외부적으로 힘이 발산되지 못한 채 그들만의 담론 혹은 잔치로 남아버릴 수 있는 가능성, 흥미 또는 호기심을 바탕으로 하는 대중의 욕구 분출로 정체될 가능성,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말미암아 발생하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순간적 장소 만들기들에 대한 호불호 등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지적할 수 있다.

“... 사이버정당을 통한 사이버정치가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풍토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사이버공간 안에서 공론화된 이슈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생각이 사이버공간을 지배하는 형태가 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광화문 대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후보를 지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든 것은 현행 선거법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힘이라고 봅니다. 다수가 함께 모인다는 것은 문자나 전화 등의 여타의 정보통신기기로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사이버정치의 힘이거든요. 20대 정치 참여에 대해 말이 많지만, 현장에서 다수의 20대들이 모인 것을 보면 분명히 사람을 모이게 하는 큰 힘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29번, 남)

인터넷은 사람들을 쉽게 연결하지만 연대감을 제공하지는 않고, 온라인 공동체는 참여하는 것도 쉽지만 빠져나가는 것도 용이하다. 본질적으로 단체를 이룬다는 것은 개개인에게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더 관여하거나 헌신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밀집(thick)’의 형태이지만, 온라인에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취향과 지향점이 합쳐진 ‘느슨한(thin)’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의 관점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느냐가 앞으로 사이버정당의 해결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홍성욱, 2002). 더 나아가 이러한 장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근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 모두가 균형 있게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Mitchell, 1999).

3)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을 통한 사이버정치의 특징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을 통한 사이버정치는 크게 시민사회 소식통으로서의 공식 역할과 시민사회 소식통으로서의 비공식 역할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주로 사이버정당 활동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 국제적 네트워크, 온라인 컨퍼런스, 온라인 공론장의 형성 등이 그 예이다. 심층인터뷰에 의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정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행동가에서 일부 나타나기(예를 들어, 오프라인의 컨퍼런스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동양식)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정착된 사례를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재외국민의 선거권 확대 등의 새로운 정치적 이슈들이 떠오르는 만큼 시민사회 소식통으로서의 공식 역할은 앞으로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 판단된다.

한편, 시민사회 소식통으로서의 비공식 역할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표 6 참조). 특히, 이번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사이버정치 이슈 중에서 눈의 띄는 현상은 이전에 없었던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등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시간으로 자신의 의견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 혹은 1촌 맺기 등과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관계맺음을 통해서 자

신만의 사적인 사이버공간 내에서도 다른 이의 의견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받는다. 이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속칭 온라인상에서의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외수, 김제동, 공지영 등과 같은 저명한 인사의 발언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다수의 팔로워(follower)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퍼나름으로써 새로운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무거운 메시지보다는 사소한 사생활을 ‘미니홈피’에서 공개한 바 있으며, 다수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의정 활동이나, 개인적인 일상사를 소셜미디어 방법을 통해 알리고 있다. 네트워크 연결망을 통해 정치 정보의 공유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신뢰와 소통의 촉진을 유발하고,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형태이기는 하다(조희정, 2010). 그리고 비단 영향력 있는 인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서도 좋은 의견을 개진한 사람의 글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장하면서 시민사회의 소식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보통의 젊은이들 사이에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 피실험자에 의하면 처음에 친구, 선후배 등의 지인 관계에 의해서 친구 맺기를 시작한 소셜미디어 기반 네트워크는 2012년 대선을 거치기 시작하면서 정치색이나 주관에 의해 분화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정치적 이슈를 자주 언급한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혹은 끊음을 당한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서 중국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크의 관계가 같은 정치적 성향을 보이거나, 비슷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만으로 연결되는 형태로 변한 것이다. 2012년 대선 자체가 워낙 회자된 이야기꺼리들이 많았고, 온라인상에서 편중된 이야기들이 생산되던 분위기에 사실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젊은이들의 욕구가 오히려 온라인 관계의 확대가 아닌 축소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현상이 종종 일어나게 되자, 20대 사이에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언급을 일부러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민감한 문

제에 대해 가능한 대응하지 않고, 자제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결국, 지난 대선에서 ‘소통’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후보자들의 의식과 달리, 가상공간 안에서는 자신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즉 그들만의 장소 규정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고,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이용되었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 페이스북을 처음 이용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과 편견 없이 친구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저처럼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만 온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선거 유세가 한참 심할 때, 일부 사람들은 페이스북의 온라인 관계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제 의견이 불편하다고...” (31번, 여)

“... 사실 페이스북에 제 의견을 올리기가 그래요. 일단 제 글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안 좋은 소리 듣기가 심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 글은 안 올리려고 해요. 거꾸로 저도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글을 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글의 내용이 저에게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온라인 친구 관계도 끊고, 실제로도 술자리 같은 것도 서로 꺼리기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좋아요’ 정도만을 누르곤 하죠...” (12번, 남자)

이처럼 형성된 온라인 기반 네트워크는 실질적인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결국 인간관계 혹은 상호작용이 대부분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초 행동가의 경우에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상당히 확장되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뚜렷한 정치적 견해로 인해 분절된 인간관계는 대선을 거치면서, 혹은 그 이후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모임만을 자극시켰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양식 혹은 인간관계의 범위는 주로 정당 혹

표 6.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의 온·오프라인의 특징

행동양식	예시	빈도		온라인 선호 공간	오프라인 선호 공간	이용 시간
		일반인	행동가			
시민사회 소식 통으로서의 비 공식 역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	중 (적극적인 경우)	상	-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무선 메시지에서 지원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집, 개인공간 - 무선의 경우에는 모든 공간 망라	- 저녁 - 무선의 경우에는 모든 시간 망라

(계속)

행동양식	온라인상에서의 행태적 특징	오프라인과의 연결성	주요 원인 및 주요 특징
시민사회 소식 통으로서의 비 공식 역할	-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 확산되어 곤란한 경우를 겪음 -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의도하지 않게 온라인상의 자신의 영역이 침범된 경우	- 인간관계에서의 변화, 이에 따른 선호 공간 선택의 변화	-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의한 호불호 - 공공의 장소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한 예민한 반응

출처: 연구자 심층인터뷰 결과, 2013.

은 정당 주변 지역을 중심이 된 것이다. 대다수 일반인에게는 이러한 사이버정치의 특징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예외적으로 정치적 관심이 깊은 일반인의 경우는 정치적인 동기로 만나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었고, 활동의 성격이 정치지향적으로 변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공간의 선택 혹은 활동 범위는 대선 이전과 이후 상당히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집회, 토론회, 정치 학교 등이 열리는 공간이 일상생활의 활동 범위에 포함되며, 이러한 장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 저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온라인의 친구 관계를 그대로 오프라인으로 가져가기도 해요. 선거 이후에도 한참 온라인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만 만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도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주로 강연회, 토론회 등에서 많이 만나요. 저의 주요한 일상이 되었죠...” (24번, 남자)

이에 더해 연구의 대상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허상과 젊은이들의 생각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비춰진 언론의 태도

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20대가 분명히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이러한 문화를 주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주 특수한 일부에 의해 만들어진 여론일 뿐이지, 그것이 모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도훈, 2013). 오히려 연구의 대상이 된 젊은이 대다수는 사실 인터넷에서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데 상당히 소극적이었으며, 관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인터넷 언론의 태도와 실질적인 20대의 생각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대를 향한 온라인공간에서의 평가와 실질적인 선거 득표율이 차이가 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생각할 때,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이슈들이 특정적으로 점유된 누군가에 의해 양산되는 스캔들의 정치(Castells, 2001)가 되지 않도록, 온라인에서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마치 하나의 전단지와 같은 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자성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토론

Batty(1997)의 연구에 의하면, 그물망(nets)과 교점

(nodes)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지리학(virtual geography)은 C-공간(Cspace), 사이버공간(Cyberspace), 사이버장소(Cyberplac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우선, C-공간은 컴퓨터 안의 공간과 네트워크를 의미하는데, 정보통신기술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Gibson, W. (1984)의 공상과학소설인 뉴로맨서(Neuromancer)에 처음 등장한 이래 많은 지리학자 및 공간과학자의 새로운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은 사이버공간은 컴퓨터를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지리적 개념이다. 사이버공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온라인상에서 인식되는 공간이며, 텍스트를 통한 커뮤니케이션(혹은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한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세계이지만, 기본적으로 물리적 장소에서 물리적 하부구조를 가지는 네트워크에 접속함으로써 시작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장소는 사이버공간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물리적 환경 혹은 인프라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 빌딩(smart building), 텔레포트(teleport) 등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을 지원하거나, 혹은 이에 영향을 받아 실제 물리적 공간에 투영된 곳이라 할 수 있다(Batty, 1997). 결국 하나의 물리적 장소에서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것(C-공간)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와 서비스의 창출을 촉진(사이버공간)시키고, 이는 다시 지리적 공간의 사회·공간적 관계에 물리적 영향(사이버장소)을 미치게 된다. 더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발생하는 이러한 순환적 공간의 이점을 지속하기 위해, 지리적 공간에서 다양한 유형의 행위자들은 새로운 C-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또 다른 형태의 정보통신기술을 개발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Batty, 1997; Dodge and Kitchin, 2001; 최병두, 2005).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사이버정치는 C-공간을 시작으로 발전했으며, 오늘날에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사이버정치의 온라인에서의 특징과 오프라인의 연결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는 행동양식에 따라 크게 정치적 이슈의 탐색 및 조회와 정치적 이슈의 개

진 및 재구조화—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접하는 공간이 달리 나타난다. 정치적 이슈의 탐색 및 조회는 열려있는 개방적인 공간이 선호되며, 반면 정치적 이슈의 개진 및 재구조화는 닫혀 있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자는 이미 사이버정치라는 말이 생기기 전부터 인터넷 이용에 있어 일상화된 행동양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게시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타인의 시선, 혹은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공간에 대한 선호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사이버정당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이버정당은 기술적으로 온라인상의 소위 가상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사이트 대신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존재, 보여주기식의 정보 제공, 기존 정치에 대한 낮은 신뢰감 등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기능이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자리를 잡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정당의 유용성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순간적 장소 만들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을 통한 사이버정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역할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비록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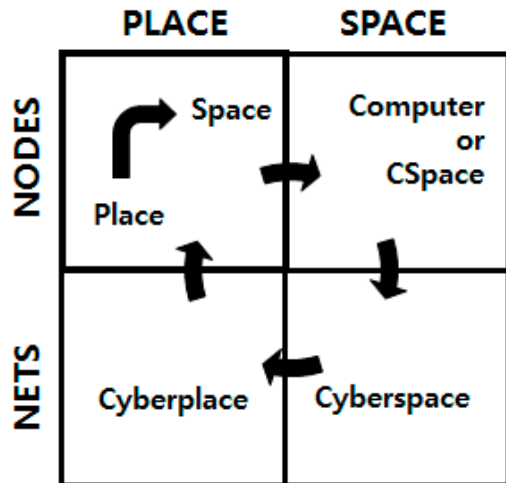


그림 1. 그물망과 교점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지리학(virtual geography)의 개념 구성

출처: Batty(1997)

표 7. 사이버정치의 일반적 특징과 2012년 대선과의 연결성

유형	일반적 특징	2012년 대선의 특징		공통점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국민참여 서비스	- 대중의 즉각적인 반응 확인이 가능 - 정보의 원전	- 정보를 얻느냐, 정보를 창출하느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점유하는 공간의 형태가 차별적 - 대개는 정보 활용이 중심 - 대중의 의견을 100% 담고 있는 유형은 아님(조작의 가능성, 특정 집단에 의한 점유)		-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치적 이슈의 관심 증폭 - 사이버정치 유형의 경계와 상관없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의 확산 - 반대로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가 동일하게 공유됨으로서 대중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발휘
사이버 정당	-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의 행동양식 혹은 실질적인 활동에까지 이어짐	- 기술적 우위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의 힘의 원천이 되지 못함 - 정보의 제공자로서의 역할, 상위 제공자로서의 기능은 아님	- 오프라인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순간적 장소 만들기에서는 유리 - 일회적인 만남, 지속성이 없음	- 사이버정치를 통한 인간행동양식의 미시적 조정 - 확장성뿐만 아니라 제약성도 존재
네트워크 시민사회의 발달과 운동	- 개개인의 욕구가 집단적으로 분출 - 정치적 관심 이외의 다양한 내용을 포괄 가능	- 개개인의 욕구가 쉽게 드러나면, 고립될 가능성이 있음 - 가능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 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짐	- 실질적인 인간관계와 일생생활의 장소의 선택에 까지 영향	- 사이버정치를 통한 인간행동양식의 미시적 조정 - 확장성뿐만 아니라 제약성도 존재

출처: 연구자 작성, 2013.

다양한 형태의 행동양식이 존재하나, 2012년 대선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형성된 온라인 관계가 점차 대선이 가까워올수록 정치적 성향과 관심에 따라 분절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결국에는 오프라인에서의 네트워크와 주요 활동 장소의 선택에 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표 7 참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사이버정치의 종합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처럼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정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격인 대의민주제를 보완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변형된 형태인 '정보 활용의 정치(informational politics)'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Castells, 2001). 사실 사이버정치의 성공 여부는 '시민성' 혹은 '시민성에 근거한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은혜정, 2002)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버정치는 정보 획득에 기초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관련 활동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아니며,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형태(Castells, 2001)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

상공간에서의 만남이 지역적으로 제한된 인간 상호작용을 대체한다던가, 온라인상에서의 정치적 환상이 같은 사람들끼리 뭉치도록 유인한다는 식의 과감한 온라인에서의 특징과 오프라인의 연결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시각적으로 그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이라 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이슈와 만나게 될 때, 여타의 활동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Couclelis(2009)의 연구와 연결해 봤을 때, 대선 전에 표면적으로 특정 시·공간에 '존재(presence)'하는 것처럼 보였을 행동양식도 본격적인 대선 경합 이후에는 동일한 행동양식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의미부여 및 이후의 행동양식을 결정짓는 수준은 일반적인 그것과는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이버정치의 각 유형은 온라인상에서 접하는 영역이 시·공간적으로 차별적이긴 하지만, 댓글, 온라인 관계 맺기 등의 파생적인 현상들로 인해 상호관련성을 갖게 된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등장 이전에 정보라는 것은 정해진 장소, 시간, 행동을 통해 통

제되고, 결정되었다면, 현재는 정보통신기술이 가지고 있는 조정(adjustment)의 역할로 인해 장소, 시간, 행동이 분절된 정보라 할지라도 상호 통합되는 형태로 시민사회에 제공되는 것이다(Couclelis, 2009). 결국 이러한 힘이 사이버정당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순간적 장소 만들기처럼 때로는 오프라인에서 강력한 힘으로 투영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이버정치는 정보 활용의 정치에 바탕으로 두고 있어, 시·공간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며 미시적인 차원에서 조정 역할에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Kellerman, 1993).

마지막으로 2012년 대선에서 눈에 띄는 개인무선 통신기기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등장과 같은 사실은 실제로는 사이버정치의 인식 확대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Thrift(1996)와 같은 급진적 성향의 학자는 모바일 기술 혹은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등장은 낡은 기술을 빠르게 대체하고, 어떤 방해나 제약 없이 통합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무엇보다 지역적 차별성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충분히 Thrift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요인들, 예를 들어, 인간관계, 타인에 대한 인식 등의 제약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사이버공간을 오히려 통제하거나, 닫혀있는 공간을 양산하는 요인 혹은 제약성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환경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장점인 이동성, 연결성, 자율성은 사실상 사이버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지인들과 실시간으로 나누게 된 이야기들이 쉽게 언론에 노출이 되고, 세상과 공유는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시선이 부담이 되는 형태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Castells, 2001). 다시 말해,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상대적인 자율성의 확대가 반드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연구가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개인의 확장성을 주목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은 제약성이라는 것도 또한

내포하고 있는 양면적 성격의 실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사이버정치의 이슈는 무엇이고, 그 안에서 지리학적인 고민은 무엇일까? 오늘날 사이버정치를 논하는 주요 이슈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진다. 우선, 전세계적인 정치적 문제의 접근이 가능한 환경과 개인 중심의 정치 참여의 강화로 인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동원(place-based political mobilization)이 점차 감소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Kitchin, 1998). 예를 들어,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동아시아 정세에 민감한 세계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시대의 도래, 대통령 선거 이외에 일반적인 정치 이슈를 다루는 사이버정치의 범위 확대와 이에 대한 국내·외 인터넷 이용자들의 참여(예를 들어, 월스트리트에서의 거대자본화에 반대한 시위, 이집트의 문제, 시리아 사태) 등이 이러한 예로서, 앞으로 지리적 범위에 상관없이 다양한 수요와 계층에 대한 흡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Castells, 2012). 이는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외부의 다양한 정보를 수용할 수 있고, 강화된 토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동원의 감소와 관련된 또 다른 관점으로 유권자들의 다양한 욕구가 다양화되고, 파편화되는 개인 중심의 정치 참여 경향을 들 수 있다. 과거의 정치는 소수의 실체에 의존(Castells, 2001)하던 집단의 여론이 중심이었다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정치는 개인적인, 한명 한명에 대한 접근을 더 중요시한다. 오늘날의 가상공간은 기초적인 지리적 개념의 단위인 개인이 움직이지 않고서도 가상적인 상상력으로 인해 자아를 확대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더 나아가 지리적인 변화를 한층 더 불러일으키며, 실제공간과 가상공간 사이의 경계가 없는 무한한 자아실현을 가능케 해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Kitchin, 1998; Adams, 2005).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지역 중심적 정치적 권력주도 혹은 관습적인 힘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리적 단위를 중심으로 하던 정치 세력과 인터넷 조직 사이의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C-공간, 사이버공간, 사이버장소, 그리고 새로운 시도로 이어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순환 회복의 필요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이버정치에서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상상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한 단계 더 나아가 사이버장소의 구상 및 새로운 C-공간에 대한 자극은 매우 미약하다. 주요 원인으로 이미 주어진 기술 혹은 환경에 익숙해진 나머지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숙한 사이버정치의 성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선거에서 가장 관건인 부동층에게 그들의 생활권 안에서 특정 정당 혹은 후보를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하거나, 약자에게는 온라인 환경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물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문제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커뮤니티를 지향한 산타모니카의 공공전자네트워크(public electronic networks: PENs)와 클리브랜드의 프리넷(Free-Net)과 같은 형태는 수백 개의 커뮤니티 조직을 유지시키고, 정보를 생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도서관, 도심부의 주변 등에 개인용 컴퓨터를 설치하고, 노숙자나 여성 등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 등이 이의 구체적인 사례이다 (Kitchin, 1998; Rogers *et al.*, 1994).

도입부에서 밝혔던 것처럼 사이버정치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 및 관련 학문에서 극히 드물며,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시험적 접근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사이버정치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 예를 들어, 서울 시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 지역 선거와 전국 선거, 국내적 이슈와 국제적 이슈의 비교 등의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사

본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준 일반인 24명의 학

생들과 새누리당, 민주당의 대학생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펼치고 있는 활동가 8명의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본 연구가 이들이 희망하던 더 나은 정치적 방향을 담은 결과이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정인, 1998,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 김도훈, 2013, SNS는 그들의 '확성기'였다, 시사HN(5월 6일).
- 김상배, 2008, 인터넷 권력의 해부, 한울아카데미.
- 김수아, 2011, "한국 사회 사이버공간과 젠더정치," 한국 사회의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 2011, 7, 109-131.
- 김용철, 2009, "한국 사이버정치의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 25, 93-128.
- 김유정, 2007, 디지털 촛수, 변화하는 인간관계, 삼성경제연구소.
- 김현성, 2006, "온라인 시민참여와 전자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대응성과 협업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2(1), 91-119.
- 매일경제, 2013, 기획특집: 2030세대의 정의감·5060세대의 온정...희망은 있다(1월 1일).
- 백승준, 2011, 인터넷 정치참여의 특징과 유형, 법률저널 (9월 30일).
-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2013, 여론집중도조사보고서, 문화관광부.
- 유석진, 1996, "정보화와 민주주의," 한배호(편), 세계화와 민주주의, 서울, 세종연구소.
- 윤종빈, 2004, "시민의 온라인 정치참여: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당학회보, 3(1), 197-220.
- 은혜정, 2002,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 한국방송진흥원.
- 이재현, 2000, 인터넷과 사이버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기웅, 2005, "사이버정치: 연구 및 교과서의 현황," 21세기정치학회보, 15(3), 69-95.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인터넷의 정치·사회적 파급 효과 및 대응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조희정, 2010, 네트워크 사회의 정치와 민주주의: 정부·정당·시민사회의 변화와 전망, 서강대학교출판부.
- 최병두, 2005, “정보통신기술과 도시공간구조: 정보기술의 발달과 공간 개념의 재구성,” *공간과사회*, 24, 8-49.
- 홍성욱, 2002, 네트워크 혁명, 그 열림과 닫힘, 들녘.
- Adams, P., 1995, A Reconsideration of Personal Boundaries in Space-Time,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5(2), 267-285.
- Adams, P. C. and Ghose, R., 2003, India.com: the construction of a space betwee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7(4), 414-437.
- Adams, 2005, *The Boundless Self: Communications in Physical and Virtual Spaces*, Syracuse University Press, New York.
- Batty, M., 1997, Virtual Geography, *Futures*, 29(4/5), 337-352.
- Castells, M., 1996,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Blackwell Publishers, Massachusetts.
- Castells, M., 2001, *The Internet Galaxy: Reflections on the Internet, Business,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Castells, M., Fernández-Ardèvol, M., Qiu, J. L., Sey, A., 2009, *Mobile Communication and Society: A Global Perspective*, The MIT Press, Cambridge.
- Castells, M., 2012, *Networks of Outrage and Hope: Social Movements in the Internet Age*, Polity Press, Cambridge.
- Choucri, N., 2000, Introduction: CyberPolitic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1(3), 243-263.
- Choucri, N., 2012, *Cyberpolitic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MIT Press, Cambridge.
- Clift, S., 2004, *E-Democracy, E-Governance and Public Net-Work*, <http://www.publicus.net>
- Couclelis, H., 2009, Rethinking time geography in the information age, *Environment and Planning A*, 41(7), 1556-1575.
- Dimagio, P., Hargittai, E., Neuman, W. R., and Robinson, J. P., 2001, Social Implications of the Internet, *Annual Reviews of Sociology*, 27, 307-336.
- Dodge, M. and Kitchin, R., 2001, *Mapping Cyberspace*, Addison-Wesley, Massachusetts.
- Gibson, W., 1984, *Neuromancer*, Ace, New York.
- Hill, K. A. and Hughes, J. E., 1998, *Cyberpolitics: Citizen Activism in the Age of the Internet*,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Maryland.
- Howard, P. E., Rainie, L., and Jones S., 2001, Days and nights on the Internet: the impact of a diffusing technolog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 383-404.
- Hudson-Smith, A., Evans, S., and Batty, M., 2005, Building the virtual city: Public participation through e-democracy, *Knowledge, Technology & Policy*, 18(1), 62-85.
- Katz, J. E., Rice, R. E., and Aspden, P., 2001, The Internet 1995-2000: access, civic involvement, and social interac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 405-419.
- Kellerman, A., 1993, *Telecommunication and Geography*, Belhaven Press, London and New York.
- Kitchin, R. M., 1998, Towards geographies of cyberspa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2(3), 385-406.
- Margolis, M. and Resnick, David, 2000, *Politics as Usual: The Cyberspace 'Revolution'*, Sage Publications, California.
- Mitchell, W. J., 1999, *e-topia*, The MIT Press, Massachusetts.
- Rogers, E. M., Collins-Jarvis, L., and Schmitz, J., 1994, The PEN Project in Santa Monica: Interactive Communication, Equality, and Political Ac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5(6), 401-410.
- Staehele, L. A., Ledwith, V., Ormond, M., Reed, C., Sumpter, A., and Trudeau, D., 2002, Immigration, the internet, and spaces of politics, *Political Geography*, 21(8), 989-1012.
- Thrift, Nigel, 1996, New urban ears and old technological fears: Reconfiguring the goodwill of electronic things, *Urban Studies*, 33(8), 1463-1493.
- Wellman, B. and Gulia, M., 1999, Virtual Communities as Communities: Net Surfers don't ride alone, in Kollock, P. and Smith, M. A. (ed.), *Communities*

박수경

in Cyberspac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www.barakobama.com

교신: 박수경, 110-74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2길
20, 상명대학교 지리학과(이메일: maria1570@
smu.ac.kr, 전화: 02-781-7545, 팩스: 02-2287-
0058)

Correspondence: Sookyung Park, Department of Ge-

ography, Sangmyung University, 20 Hongji-
moon 2 Gil, Jongro-Gu, Seoul 110-743, Korea
(e-mail: maria1570@smu.ac.kr, phone: +82-2-
781-7545, fax: +82-2-2287-0058)

최초투고일 2013. 7. 26

수정일 2013. 10. 12

최종접수일 2013. 10. 17